

“흠친 물건만큼 어려운 이웃 도와라” 슈퍼 주인의 ‘아름다운 용서’

광주 용봉동 김성진씨... 자신도 年 3천만원 기탁

“죄가 많지 어디 사람이 많나요.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 ‘영암 마트’ 주인 김성진(41)씨는 17일 ‘아름다운 용서’를 했다.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30대 회사를 처벌하라고 하는 대신, 훔친 만큼의 물건을 도와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 가게 앞에 쌓아둔 고추와 마늘 등 10만원 상당의 야채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전에 몇 차례 물건을 없어져도 그러려니 했는데, 너무 많은 야채가 한꺼번에 사라지자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 TV) 화면에 찍힌 차 번호를 단서로 용의자

를 추적, 회사원 조모(35)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았다. 조씨는 경찰에서 “형편이 어려워 우발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민 끝에 김씨는 “돈으로 갚는 대신 사회복지 시설에 훔친 물건 만큼을 기부하라”고 제안하며, ‘행사 합의’를 했다. 합의를 한다고 밤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주고 싶어했다.

조씨도 그동안 훔친 물건이 30만원쯤 된다며 김씨 가게에서 쌀·라면·양배추 등을 사서 ‘담양 온누리 재활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보냈다. 김씨도 20만원어치를 보냈다.

김씨는 동네에서 ‘훈훈한 아저씨’로 통한다. 어린 학생들이 물건을 훔치고 달아날 때면, 처벌 대신

‘반성문’을 쓰게 했다. 아이들에게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며 따끔하게 혼내 뒤, 반성한 기념으로 통닭파티를 열어주기도 했다.

영암이 고향인 김씨는 지난 1992년 광주로 와 리어카 장사부터 시작, 7년 뒤 상가를 얻어 지금껏 마트를 운영해왔다. 지난 13년 동안 북구 동림동에 있는 고아원(광주 애육원)에 과일과 쌀을 후원하는 등 총 4곳의 보육·재활 시설을 돕고 있다. 기부금액만도 1년에 3천만원이 넘는다.

김씨는 “순간의 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수는 있지만 그 일로 큰 처벌을 받는 게 안타까워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뿐”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일 후회자가 한 명 더 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슈퍼 주인’ 김성진씨.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기능대회 입상 미끼 교감이 금품 받았다”

목포 학부모가 고소

목포 M 실업계 고등학교 학부모가 “이 학교의 교감이 자녀들이 출전하는 기능대회에서 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소해 전남도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고소장을 제출한 학부모 S씨는 “이 학교 K교감이 아들들 기능대회에 입상시켜 주겠다고 제안 한 뒤 금품을 받아 챙겼다”고 17일 밝혔다.

S씨는 “교감이 고 3인 아들들 전국 기능대회 통합제 조립분야에 출전시켜 입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특정 화가의 작품을 요구해 30점 이상을 건네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3학년 때 뿐만 아니라 1·2학년 때도 진도 홍주 등을 건넸고 2학년 때 지도교사가 돈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며 “현재 대회 출전이 무산된 후

아들이 스트레스성 피부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S씨는 또 “정작 전국기능대회에 통합제조부문이 없어 대회 출전조차 하지 못해 교감에게 항의했더니 그림값을 주겠다고 해 최근 그림 값으로 250만원을 받았으며 공식사과를 하도록 했으나 법대로 하라고 목살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지난해 국제 기능경기대회에 자녀를 내보내면서 K교감에게 특산물과 현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교감은 “그림은 1학년 때부터 운영위원장 학부모가 인사차 건넨 것을 순수하게 받았을 뿐이다”며 “기능대회 입상을 전제로 그림이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국대회 입상자 대학 특별전형 입학

기능대회 혜택은?

전남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출전할 수 있는 기능경기 대회는 1년에 3개 정도다.

매년 4월에 열리는 전남기능경기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획득한 학생은 소정의 상금을 받을 수 있고 9월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금메달 1천 200만원 ▲은메달 800만원 ▲동메달 400만원 ▲장려 100만원의

상금과 국가기술자격증을 받는다. 대학진학을 할 경우 특별전형 입학이 가능하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격년제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획득하면 ▲철도산업훈장 ▲병역특례혜택 ▲연금·산업기사 자격증 부여 혜택이 있다. 대학 진학시엔 장학금을 지원하고,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도 빌려준다.

/최재호기자 lion@



보상금 시위 50대 영장

광주 서부경찰은 17일 남구 양림동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발, 불법시위를 벌인 조모(여·50)씨에 대해 집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여·60)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임주형기자 jhlim@

도우미에 ‘혹심’... 발기부전제 먹여

○~노래방 도우미 유혹하려고 맥주에 발기부전치료제를 몰래 탄 50대가 경찰에 달미.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최모(54·광주시 남구)씨는 17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정모(여·31)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맥주잔에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를 탔다는 것.

○~최씨의 ‘혹심’은 도우미 정씨가 심한 두통을 일으키는 바람에 탄로났는데, 최씨는 “발기부전제가 여성도 흥분하게 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승용차 낭떠러지 추락 4명 사상

어제 강진군 덕연리

16일 오후 6시께 강진군 도암면 덕연리 신덕마을 앞 ‘서기산’ 정상 부근에서 박모(73·경기도 안양시)씨가 운전하던 39나89XX호 EF소나타가 10m가량 높이의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나모(74·경기도 화성시)·박모(73·전북 김제시)씨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박씨와 앞좌석에 타고 있던 윤모(여·38·강진군 도암면)씨가 머리 등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남자 3명은 고교 동창생들로, 이 지역에 운전자 박씨가 구입해 놓은 임야를 둘러보고 돌아가던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의 도로가 폭 3.5m에 불과한 입도인데다 ▲당시 날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초행길이었다던 박씨가 급커브길에서 미처 핸들을 꺾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광주 시내버스 기사들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16일 오전 8시 광주시 동구 학동 3거리에서 “승객들을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며 인사하고 있다. 버스기사들과 직원 500여 명은 이날 오전 문화센터 당역·광천터미널·말바우시장·시장 앞 등 주요 승강장에서 환승 방법 등을 안내하며 친절 캠페인을 벌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문화재 조작 여부 등 수사

순천지청, 공사 현장 발굴 조사기관 압수수색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순천시 조례동 재단법인 A문화재단 연구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회계장부·계약서·문화재 발굴 용역서 등 10장사 분량의 각종 서류를 압수한 뒤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압수된 서류를 토대로 용역비 횡령 여부와 발굴 조사 과정에서 문화재 일부를 조작했는지도 함께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문화재단 연구원은 순천시 덕암동

아파트 공사 시행사 측과 8억6000만원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계약하고 2005년 7월 발굴을 시작, 지난해 9월 발굴 조사를 마쳤다.

발굴 결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BC 6~3 세기에 걸친 주거지 240기와 환호(環壕) 428m, 석관묘·옹관묘 등 무덤 10여 기, 경질(硬質) 무문토기 등 170여 점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면서 유적 보존 논

란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발굴 조사 과정에서의 인건비 지출이 불투명하고 또 다른 아파트 부지에서 출토된 문화재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연구원 B원장은 “용역비는 원칙대로 집행했고 감사에서도 지적된 적이 없다”며 “문화재를 조작했다는 일부 의혹도 현재 유구가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엄마” 사랑해요!

“어보”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어보” 사랑해요!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력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결을 한결을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약력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최사 사람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국제약품

http://www.kukjeopharm.co.kr